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영광 발빠른 대처

농업분야 선제적 피해대응 대책 논의해 정부 건의 강화 농·어업인에 사회적 보상 해주는 농어민공익수당 시행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정부가 최근 농업분야 WTO(World Trade Organization,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함에 따라 농업과 농업인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군 차원의 대응계획을 마련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군은 '영광군농업발전협의회'에서 농업분야 선제적 피해대응 대책을 논의하고 농업분야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대정부 정책 건의를 강화할 방침이다. 농업인 경영안정 시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기능을 수행하는 농·어업인에게 사회적 보상을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을 육성하기 위한 '영광군 농어민공익수당'을 2020년부터 시행한다. 또한 농산물 가격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군 주요 품목인 고추, 양파, 대파에 대해 '영광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아울러 태풍·가뭄 등 각종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전 품목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재해·재난 시 '영광군농업발전기금'을 적극 활용해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농업은 우리 군 기간사업이며 지역경제의 버팀목이다"며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은 매우 안타깝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아 농업분야 체질개선과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업인·농업인단체·관계기관·관계부서와 현장에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진 기자 jin780617@



나주, 2020년 재해예방사업
국비 318억원 등 사업비 확보

전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0년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대상지로 남평읍 평산·풍림지구, 삼영동 삼영지구가 최종 선정돼 국비 318억원 등 총 사업비 636억원을 확보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항구적인 방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시는 내년부터 2023년까지 4년 간 506억원을 투입, 남평 평산·풍림리 일원에 배수펌프장 및 우수지 각 2개소를 설치하고, 소하천(구지천, 원적천) 제방·호안 시설 정비에 나선다. 이를 통해 집중호우 시, 지석천 수위상승으로 인한 하천범람과 저지대 농경지 상습 침수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삼영지구에는 오는 2022년까지 총 130억원을 투입, 삼영동 일원 주택·상가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우수저류시설 설치 및 우수관로를 정비할 계획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급작스런 자연재해로부터 인명은 물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번 공모 선정을 위해 행안부를 수차례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며, "앞으로도 재해위험요인 신규 발굴과 사업추진을 위한 국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전했다.

/나주=김동철 기자 dongkk@



함평군은 지난달 30일 월야 달맞이공원에서 함평사건희생자유족회(회장 정근욱) 주최로 '제69주기 함평사건 민간인 희생자 합동 위령제'를 봉행했다.

함평 제69주기 함평사건희생자 위령제 봉행

함평군(군수 권한대행 나운수)은 지난달 30일 월야 달맞이공원에서 함평사건희생자유족회(회장 정근욱) 주최로 '제69주기 함평사건 민간인 희생자 합동위령제'를 봉행했다.

이날 위령제에는 나운수 함평군수 권한대행, 정철희 함평군의회 의장, 박영숙 함평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과 유족·학생·지역주민 등 900여 명이 참석해 애도를 표했다.

본 위령제는 전통제례, 추모식, 유족회 총회 순으로 진행됐다.

추모식에서는 읍·면별 희생자 이름이 적힌 대형 현수막이 희생자 위패를 대신하고 전통 제례에서는 참석한 유족 모두가 헌주를 올리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장엄하게 진행됐다.

특히 올해 위령제는 지난 9월 완공된

월야 달맞이공원 내 함평사건 민간인 희생자 추모공원에서 열려 그 의미를 더했다.

나운수 함평군수 권한대행은 "올해 처음 위령제가 봉행된 함평사건 민간인 희생자 추모공원을 위해 유족회에서 2억 원이 넘는 돈을 흔쾌히 모금해주셨다"면서,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유린의 역사가 다시는 이 땅에 되풀이 되지 않도록 이번 추모공원 건립을 시작으로 위령탑 건립, 진상규명을 위한 관련자료 발굴 등 각종 추모 사업을 적극 추진·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근욱 함평사건희생자유족회장 역시 "우리 가족·선배·친구들이 국가 공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지 벌써 69년이 흘렀지만 국가와 국회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며, "국회에 몇

년째 계류 중인 미배상자 구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 희생자와 유족들의 원통한 마음을 하루빨리 달래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함평사건은 한국전쟁 전후 국군 제11사단 20연대(전남지구전투사령부) 2대대 5중대에 의해 지역 민간인이 무고하게 집단 학살된 사건으로, 지난 2007년 진실화해위원회에 의해 '함평 11사단사건'으로 진실규명이 결정됐다.

그러나 총 1천292명의 희생자 중 898명만이 진실규명을 받았으며, 그중에서도 시효경과를 이유로 152명만이 법원으로부터 배·보상 판결을 받아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함평=박동주 기자 df3141@

“장성 농산물 전국 김스클럽서 만나세요”

5일까지 '엘로우시티 장성 농특산물전' 열어

장성의 우수 농·특산물을 만나볼 수 있는 '엘로우시티 장성 농·특산물전'이 전국 김스클럽에서 풍성하게 열린다.

장성군은 사과, 단감, 양파, 새송이 등 지역 소비자에게 인기 있는 장성 농·특산물을 전국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이번 기획전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엘로우시티 장성 농·특산물전'은 지난달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일주일 동안 강남점, 아담점 등 전국 김스클럽 36개 매장에서 진행된다. 이 기획전은 장성군농협연합사업단이 주관하고 11개 업체가 참여한다.

기획전에서는 장성 제철 농산물인 사과, 단감, 햅쌀 등의 시식행사도 열려 소비자들이 직접 농산물을 맛보고 구입할 수 있다. 특히 김스클럽 강남점에서는 장성의 농산물과 함께 엘로우시티 장성의 황금떡, 편백제품 등



다양한 가공특산품도 선보인다.

이번 기획전의 주요 품목인 '장성사과'는 높은 당도, 풍부한 과즙, 좋은 식감 등 뛰어난 품질로 인기가 높다. 또 '장성단감'은 일교차가 큰 지역에서 재배돼 씨알이 굵고 맛과 향이 좋으며, 당도와 유질이 뛰어나 소비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한편 장성군은 이번 '엘로우시티 장성 농·특산물전' 종료 후,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이랜드리테일 바이어 초청 산지 체험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장성=유광종 기자 hanjae365@

제17회 담양 가로수사랑음악회 개최

9일 오후 3시부터 메타세쿼이아길 야외무대

담양의 관광명소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길에 단풍이 붉게 물들어 가는 계절에 자연과 환경을 노래하는 음악제로 사랑받고 있는 '제17회 담양 가로수사랑음악회'가 열린다.

담양가로수사랑군민연대(사무처장 장광호)가 주관해 올해로 17회째 개최하는 '담양 가로수사랑음악회'는 오는 11월 9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메타세쿼이아길 호남기후변화체험관 앞 야외무대에 마련된다.

올해 가로수음악회는 본공연 '초대 가수 무대'에 가요계 정상에 올랐던 '청바지 아

가씨' '무기여 잘있거라'의 가수 박성민을 비롯 가을을 노래하는 가수 '가을사랑'의 신계영, '춧발잔치' '그집앞'으로 큰 인기를 얻었던 가수 이재성, '달빛창가에서' '선녀와 나무꾼'으로 유명한 도시아이들이 출연한다.

본공연에 앞서 열리는 1부 '담양을 사랑합니다' 무대에는 지역에서 활동중인 듀엣 팝페라 가수 박민성·이영 공연을 비롯 퓨전국악 '루트머지', 가수 김동규와 이영하 등이 출연해 감미로운 음악으로 가을 정취를 선사한다.

/담양=강종연 기자 jlbest1@

화순 동면, 공중목욕탕 운영 주 3회로 확대

화순군(군수 구충근) 동면 행정복지센터는 주민건강센터 목욕탕을 11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주 3회 운영한다.

기존은 화요일은 남성, 목요일은 여성 주민이 목욕탕을 이용해 왔으나 날이 추워지며 이용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금요일에도 여자목욕탕을 운영하기로 했다.

동면은 공중목욕탕 운영을 지난 1월부터 3월 말까지 주 3회 시범 운영한 바 있다. 겨울철에는 계속해서 확대 운영해달라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복지회관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확대 운영을 결정하게 됐다.

/화순=남호경 기자 hknam@

전남도민일보 캠페인
http://www.jndomin.kr/



산업재해 사고 사망 상해부위 1위는 '머리'

안전모 한번더 확인하면 모두가 안전합니다.

당신의 안전이 가족의 행복입니다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